

일부지역 인문계 고등학생의 치과위생사 이미지 및 영향요인 분석

한옥성*, 정경이**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의공학협동과정*, 호남대학교 치위생학과**

A study on the Image for Dental Hygienists and Influence Factor in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Ok-Sung Han*, Kyung-Yi Chung**

Dept. of Biomedic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ept. of Dental Hygiene, Honam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치과위생사를 바라보는 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시행되었다. G 지역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211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모든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평균, 표준편차,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인문계열 학생의 경우 직업적, 업무적 이미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05$), 치과위생사에 대해 소개나 설명을 들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사회적 이미지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p < 0.05$). 또한 구강상태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치과위생사 이미지의 요인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치과위생사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직업적 이미지($\beta = 15.328$)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제어 : 개인적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 업무적 이미지, 자아존중감, 직업적 이미지, 치과위생사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mage for dental hygienists and influence factor in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surveyed by 211 high school student in G area. the data were analyzed for frequency analysis, average, standard deviation,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by using SPSS 21.0 program. In case of general high-school students, occupational and business images were higher significantly. The social images were higher significantly in case of having introduction or explanation for dental hygienists. In addition, the self-esteem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oral condition.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among the occupational, business, personal, social images of dental hygienists and self-esteem.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highest in occupational images.

Key Words : Personal image, Social image, Business image, Self-esteem, Occupational image, Dental hygienist

Received 7 December 2016, Revised 1 February 2017
Accepted 20 February 2017, Published 28 February 2017
Corresponding Author: Kyung-Yi Chung
(Dept. of Dental Hygiene, Honam university)
Email: 2014149@honam.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최근 국가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의료 서비스 향상에 관해 가치 창조가 더욱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치과의료 서비스도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치과위생사는 치과를 내원하는 환자들의 구강건강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또한 높은 지적수준과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유능한 인력으로서 환자들의 구강건강을 향상시켜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한다[1].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치과진행 과정에 대해서 옆에서 도와주는 보조자 역할이 아니라, 지적이며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자신감 있는 치과위생사의 이미지를 가져야 한다[2].

이미지는 특정 대상에 대하여 각 사람이 가지는 신념, 생각, 인상의 집합체로서 태도를 형성하는 심리적인 요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미지를 정확히 측정하거나 일반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견, 태도, 행동의 측정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3]. 또한 이미지는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 및 상황에 따라 생성되고 변화하며 사람에 따라 다르게 형성 될 수 있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4]. 따라서 인간의 감성에 따라 인지되는 생각에 관하여 주관적 의미라고 할 수 있으며, 곧 선호의 기반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5]. 치과위생사가 전문구강보건인력으로서 향상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치과위생사의 이미지 정립이 중요하다[4].

치과위생사의 이미지정립과 더불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및 경험을 토대로 치과를 내원하는 환자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치과위생사 자신의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확립되어야 한다[6].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에 대한 일종의 가치평가를 뜻하고,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고 설명하며 예언하는데 도움을 주는 주요 변인 중 하나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감정을 극대화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7].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현실의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자신을 독려하며 미래를 준비하지만,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본인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주위 사람에 대해 열등감을 갖게 되고 현실과 미래에 소극적인 자세를 가

지게 된다[6]. Coopersmith[8]은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습관적으로 내리는 평가를 자아존중감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자신에 대한 칭찬 또는 비난의 정도를 나타낸 것이며, 자신이 얼마나 성공적이고 가치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아존중감은 전문직종사자들에게 직무에 대한 적응력과 직무능력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치과위생사는 치위생 직무를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므로[6] 자신과 환자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 치과위생사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미래의 치과위생사가 될 수 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 이미지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치과위생사를 바라보는 이미지와 영향요인 관련성을 분석하여 치과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전문인력으로서 치과위생사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정립되어 치위생 교육과 사회적 인식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2.1 연구대상 및 방법

2.1.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15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G지역 소재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선정된 학교를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설문지를 배부한 후 약 20분간을 주고 작성하게 한 후 바로 회수하였다. 총 240부 중 누락된 항목이 있는 29부 설문지를 제외한 21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1.2 연구도구

치과위생사의 이미지는 조[9]의 연구에 사용된 문항 중 본 연구에 타당한 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 도구의 신뢰도는 직업적 이미지(6문항) Cronbach's $\alpha=0.79$, 업무적 이미지(5문항) Cronbach's $\alpha=0.73$, 개인적 이미지(4문항) Cronbach's $\alpha=0.84$, 사회적 이미지 (4문항) Cronbach's $\alpha=0.60$ 이었다. 또한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Coopersmith가 제작한 Self-Esteem Inventory를 강(1986년)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0.90이었다. 설문의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

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치과위생사의 인식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2.1.3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IBM SPSS 21.0 for windows(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치과위생사의 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그룹 간 차이 비교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치위생사의 이미지와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치과위생사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3.1 고등학생이 지각한 치과위생사 이미지와 자아존중감

고등학생이 지각한 치과위생사 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의 정도는 <Table 1>과 같다. 총 치과위생사 이미지 평균은 3.40점이었으며, 영역별로는 개인적 이미지가 3.61점, 직업적 이미지가 3.52점, 업무적 이미지가 3.35점, 사회적 이미지가 2.88점 순이었다. 자아존중감은 평균 3.33점이었다.

<Table 1> Image for dental hygienists and self-esteem in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Variables		Mean±SD	Min	Max
Image for dental hygienists	Occupational image	3.52±0.61	1.50	5.00
	Business image	3.35±0.62	1.00	5.00
	Personal image	3.61±0.65	1.00	5.00
	Social image	2.88±0.61	1.00	5.00
	Total image	3.40±0.49	1.58	4.79
Self-esteem		3.33±0.48	1.30	4.61

3.2 고등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치과위생사 이미지 및 자아존중감

고등학생의 일반적인 특성과 치과위생사 이미지 및 자아존중감 분석 결과는<Table 2>와 같다. 인문계열 학

생의 경우 직업적, 업무적 이미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5), 가족 소득수준의 경우 직업적, 업무적, 사회적 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보건계열 지원희망자는 사회적이미지가(p<0.001), 4년제 학부과정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직업적(p<0.01), 업무적(p<0.01), 개인적(p<0.05), 사회적 이미지(p<0.01)가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3 치과관련 요인과 치과위생사 이미지 및 자아존중감 분석

치과위생사에 대해 소개나 설명을 들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사회적 이미지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 치과에서 치료받는 경험에 따라 업무적 이미지와 개인적 이미지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5), 치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 사회적 이미지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p<0.01). 또한 구강상태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Table 3>.

3.4 연구대상자의 치과위생사 이미지와 자아존중감 상관관계

치과위생사 이미지의 요인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치과위생사 이미지와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4>.

3.5 치과위생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치과위생사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회귀분석에서는 고려된 모든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변수선택법을 입력방법으로 설정하였다.

적합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001), 고려된 독립변수들이 치과위생사 이미지 전체 변동의 95.0%를 설명하였다(Adjusted R²=0.950). 독립변수 중 직업적, 업무적, 개인적, 사회적 이미지와 가족소득수준 상, 중상이 치과위생사 이미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직업적 이미지(B=0.261, p=0.000), 업무적 이미지(B=0.169, p=0.000), 개인적 이미지(B=0.158, p=0.000),

<Table 2> Image for dental hygienists and self-esteem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in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N:211

Variables		N(%)	Images				
			self-esteem	occupational	business	personal	social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School track	Academic	88(41.7)	3.38±0.48	3.62±0.62	3.46±0.62	3.65±0.62	2.92±0.57
	natural science	123(58.3)	3.29±0.48	3.44±0.60	3.26±0.61	3.58±0.66	2.85±0.63
	t(p)		1.265(0.207)	2.067(0.040*)	2.306(0.022*)	0.731(0.466)	0.886(0.377)
School grade	Top	57(27)	3.56±0.58	3.49±0.68	3.31±0.70	3.52±0.67	2.81±0.59
	Middle	123(58.3)	3.33±0.38	3.56±0.58	3.41±0.59	3.68±0.61	2.92±0.64
	Down	31(14.7)	2.93±0.37	3.41±0.61	3.15±0.55	3.49±0.71	2.84±0.51
	F(p)		19.940(0.000)	0.801(0.450)	2.400(0.093)	1.831(0.163)	0.774(0.462)
Family income	Top	13(6.2)	3.29±0.84 ^a	3.54±1.09	3.47±0.97	3.40±0.85	3.33±0.92
	Middle-top	46(21.8)	3.60±0.44 ^b	3.79±0.60	3.98±0.46	3.67±0.56	3.55±0.60
	Middle-middle	119(56.4)	3.26±0.43 ^a	3.35±0.62	3.61±0.52	3.43±0.54	3.20±0.52
	Middle-bottom	31(14.7)	3.21±0.44 ^{ac}	3.27±0.65	3.61±0.53	3.32±0.52	3.15±0.51
	Bottom	2(0.9)	3.26±0.18 ^{ab}	3.25±0.00	3.36±0.30	3.33±0.23	3.42±0.11
	x ² (p)		4.930(0.001 ^{**})	4.539(0.002 ^{**})	4.698(0.001 ^{**})	2.140(0.077)	3.789(0.005 ^{**})
Major	Health	52(24.6)	3.33±0.42	3.62±0.53	3.48±0.53	3.72±0.60	3.14±0.48
	Non-health	159(75.4)	3.33±0.50	3.49±0.64	3.30±0.64	3.57±0.66	2.79±0.62
	t(p)		0.063(0.950)	1.311(0.191)	1.759(0.080)	1.436(0.153)	3.705(0.000 ^{***})
Necessity of university	Yes	156(73.9)	3.34±0.48	3.60±0.59	3.43±0.59	3.68±0.58	2.96±0.59
	No	55(26.1)	3.29±0.49	3.27±0.63	3.11±0.65	3.41±0.77	2.64±0.59
	t(p)		0.718(0.473)	3.521(0.001 ^{**})	3.273(0.001 ^{**})	2.300(0.024 [*])	3.374(0.001 ^{**})

^{*}p<0.05, ^{**}p<0.01, ^{***}p<0.001
^{a,b,c}The same letter indicates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Duncan, LSD test at α=0.05

<Table 3> The image for dental hygienists and self-esteem analysis

Variables		N(%)	Images				
			self-esteem	occupational	business	personal	social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Dental practitioners	Yes	27(12.8)	3.26±0.62	3.54±0.55	3.50±0.60	3.78±0.59	2.95±0.66
	No	184(87.2)	3.34±0.46	3.51±0.62	3.32±0.62	3.58±0.65	2.87±0.60
	t(p)		-0.807(0.421)	0.225(0.822)	1.347(0.179)	0.311(0.149)	0.677(0.499)
Introduction of a dental hygienist or experience	Yes	44(20.9)	3.30±0.59	3.63±0.65	3.37±0.55	3.70±0.65	3.04±0.65
	No	167(79.1)	3.34±0.45	3.49±0.60	3.34±0.64	3.59±0.64	2.84±0.59
	t(p)		-0.436(0.663)	1.293(0.198)	0.275(0.783)	1.034(0.304)	1.970(0.050 [*])
Treatment experience	< 1 year	128(60.7)	3.36±0.50	3.55±0.62	3.42±0.61 ^a	3.70±0.65 ^a	2.89±0.61
	1-2 year	43(20.4)	3.29±0.47	3.56±0.57	3.32±0.60 ^{ab}	3.54±0.58 ^{ab}	2.89±0.61
	≥ 2 year	40(19)	3.28±0.44	3.67±0.62	3.13±0.63 ^b	3.41±0.66 ^b	2.82±0.61
	F(p)		0.570(0.566)	1.495(0.227)	3.392(0.036 [*])	3.381(0.036 [*])	0.240(0.787)
Treatment places	Dental clinic	192(91)	3.34±0.46	3.52±0.60	3.34±0.61	3.59±0.62	2.85±0.58 ^{ab}
	Dental hospital	15(7.1)	3.18±0.71	3.62±0.70	3.34±0.75	3.87±0.90	3.35±0.78 ^a
	Public health	4(1.9)	3.45±0.62	3.00±0.81	3.35±0.88	3.56±0.96	2.69±0.68 ^b
	x ² (p)		0.891(0.412)	1.634(0.198)	0.000(1.000)	1.273(0.282)	5.102(0.007 ^{**})
Oral condition	Very good	18(8.5)	3.50±0.59 ^a	3.39±0.83	3.30±0.87	3.60±1.02	3.00±0.81
	Good	50(23.7)	3.43±0.51 ^a	3.44±0.67	3.25±0.62	3.67±0.59	2.82±0.61
	Normal	89(42.2)	3.30±0.43 ^a	3.52±0.57	3.33±0.58	3.54±0.63	2.87±0.62
	Bad	50(23.7)	3.24±0.38 ^{ab}	3.62±0.54	3.46±0.60	3.65±0.59	2.89±0.50
	Very bad	4(1.9)	2.90±1.20 ^b	3.79±0.45	3.55±0.34	4.00±0.40	3.31±0.37
x ² (p)		2.467(0.046 [*])	0.974(0.423)	0.889(0.471)	0.725(0.576)	0.820(0.514)	

<Table 4> Correlation among image for dental hygienists

Variables		Occupational	Business	Personal	Social	Self-esteem
Occupational	r(p)	1				
Business	r(p)	0.671 (0.000***)	1			
Personal	r(p)	0.658 (0.000***)	0.668 (0.000***)	1		
Social	r(p)	0.557 (0.000***)	0.500 (0.000***)	0.560 (0.000***)	1	
Self-esteem	r(p)	0.109(0.114)	0.132(0.056)	0.093(0.181)	-0.043(0.532)	1

*p<0.05, **p<0.01, ***p<0.001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dental hygienist images

Variables	B	S.E	β	t	p-value*
(Constant)	0.402	0.105		3.834	0.000
Occupational image	0.261	0.017	0.373	15.328	0.000
Business image	0.169	0.016	0.246	10.282	0.000
Personal image	0.158	0.016	0.239	9.720	0.000
Social image	0.210	0.015	0.300	13.710	0.000
Family income (Top)	0.196	0.079	0.112	2.499	0.013
Family income (Middle-top)	0.168	0.076	0.163	2.223	0.027
F(p)=229.348(0.000***), Adjusted. R ² =0.950					

사회적 이미지(B=0.210, p=0.000)가 높을수록, 가족소득 수준(상)(B=0.196, p=0.013), 가족소득수준(중상)(B=0.168, p=0.027)이 높을수록 치과위생사의 이미지가 높았다. 또한 표준화회귀계수를 이용하여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치과위생사 이미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업적 이미지(β =15.328)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적 이미지(β =13.710), 업무적 이미지(β =10.282), 개인적 이미지(β =9.720), 가족소득수준 상(β =2.499), 중상(β =2.223) 등의 순이었다.

4. 총괄 및 고안

치과위생사는 구강건강관리를 담당하는 필수 인력으로서 치과 병원 및 의원, 학교 내 구강 보건실, 보건소, 군부대 의무실 등 구강 건강과 관련된 분야에서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위생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며, 치과위생사에 대한 편견과 인식부족이 치과위생사의 성장에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미래 본인의 직업을 선택하는 고등학생

들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의 이미지와 영향요인에 대해 연구를 시행하였다.

일반인이 인지한 간호사 이미지 연구에서 이미지를 사회적 이미지, 직업적 이미지, 업무적 이미지, 개인적 이미지로 구분하고 있다. 업무적 이미지는 실제로 병원에서 행하는 구체적 의료서비스의 여러 형태에 대하여 일반인들의 이미지를 뜻하고, 사회적 이미지는 우리의 일반적 사회생활에서 투영되는 이미지를 의미한다. 직업적 이미지는 일반인들에게 비춰지는 외관적 이미지로 타 직업과 비교되는 이미지이며, 개인적 이미지는 일반인이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대상의 외향적 성격이나 태도에 대한 이미지를 정의하고 있다[10].

고등학생이 지각한 치과위생사 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의 정도에서 총 치과위생사 이미지 평균은 3.40점이었다. 영역별로는 개인적 이미지가 3.6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 조[9]의 연구와도 같은 결과이다. 따라서 고등학생에 의해 치과위생사 개인적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개인적 이미지 요인에는 ‘칭결하고 단정하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다’, ‘자신감이 있고 당당하다’, ‘친절하다’가 해당되었다. 반면, 사회적 이미지가 2.88점으로 고등학생이 치과위생사

의 사회적 이미지를 낮게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사회적 이미지 요인에는 ‘사회적 위치가 높은 편이다’, ‘가치 있는 직업이다’, ‘가족이나 친지에게 권하고 싶은 직업이다’, ‘독립된 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고등학생이 개인적으로 치과위생사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는 있으나 사회적인 부분에서는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정[11]의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었다. 치과위생사의 이미지가 긍정적일수록 사회적인 위치도 좋아야하지만 아직은 그렇지 못하다는 보고가 있다[12]. 이는 치과위생사로써 주 업무인 예방처치자의 업무보다는 진료협조자의 업무가 많이 비춰지고 있음으로 생각된다. 조[9]의 연구에서도 미국 치과위생사는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진료를 시행하는 전문 인력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진료보조업무에 치중하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주된 업무인 예방처치자와 구강보건교육자로서의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고등학생의 일반적인 특성과 치과위생사 이미지 및 자아존중감 분석 결과에서 인문계열 학생의 경우 직업적, 업무적 이미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직업적 이미지의 요인에는 ‘전문직이다’, ‘국민 구강건강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평생 직업으로 적합하다’, ‘사명감이 있다’, ‘치과의사와 동료의식이 강하다’가 포함되었고, 업무적 이미지의 요인에는 ‘적극적으로 일한다’, ‘환자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보살핀다’, ‘전문적인 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치과의사와 환자간의 중간에서 매개역할을 한다’의 내용으로 보아 앞으로 자신의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고등학생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면서 국민의 구강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치과위생사의 직업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치과위생사들이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도포 등의 행동들도 이러한 긍정적인 이미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 소득수준의 경우 직업적, 업무적, 사회적 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보건계열 지원희망자에서는 사회적 이미지가($p < 0.001$)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고등학생이 지각한 치과위생사 이미지에서 사회적 이미지가 낮게 나온 결과와

비교했을 때, 보건계열 지원희망자 학생들은 치과위생사의 직업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진료보조자로서 역할만 보는게 아니라 치과위생사의 업무나 역할 등에 관심을 가지고 더 깊이 알아본 결과 사회적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내린 것으로 생각된다.

4년제 학부과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직업적($p < 0.01$), 업무적($p < 0.01$), 개인적($p < 0.05$), 사회적 이미지($p < 0.01$)가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금 더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위해 4년제 학부과정이 치과위생사의 역할 수행과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치과위생사에 대해 소개나 설명을 들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 사회적 이미지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p < 0.05$), 치과에서 치료받는 경험에 따라 업무적 이미지와 개인적 이미지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신[10]의 연구에서도 치과위생사의 이미지가 일반인보다 내원환자인 경우가 높게 나타났으며, 강[13]의 연구에서는 치과 방문 횟수가 많을수록 치과위생사 업무에 파악할 수 있다는 나타났다. 이는 의료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을 바탕으로 치과위생사가 단순히 진료보조자가 아닌 전문 직업인이라는 이미지 인식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치과의원보다 치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 치과위생사의 사회적 이미지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p < 0.01$), 일반 개인치과 보다 전문적인 의료기관에서의 역할 수행이 이미지를 더 높게 평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구강상태가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치과위생사 이미지의 요인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치과위생사의 사회적 이미지와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직업적 이미지, 업무적 이미지, 개인적 이미지는 긍정적이나 다소 사회적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적 이미지 요인에는 ‘사회적 위치가 높은 편이다’, ‘독립된 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윤[14]등과 라[15]의 연구결과에서도 치과위생사가 고유 업무인 예방업무나 구강보건교육 보다는 주로 치과의사의 진료보조 업무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인식경향이 나타났다. 치과위생사의 예방처치자 및 구강보건교육자로서 치아를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등의 구

강질환으로부터 관리하고 지켜내는 고유 주된 업무부분에 대한 홍보 및 인식이 부족함으로 생각된다. 요즘 많은 환자들이 구강관리를 위해 치실 및 치간칫솔 등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고 있지만 잘못된 지식으로 사용할 때 오히려 구강건강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16]. 따라서 환자의 구강에 맞게 올바른 구강위생용품을 선택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구강보건교육자로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들에게 구강보건교육을 하거나 군것질을 제한함으로써 자녀들의 치아우식증을 예방할 수 있었으므로[17] 구강보건교육자로서 더 많은 역할과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치과위생사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직업적 이미지($\beta=15.328$)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업적 이미지란 일반인들에게 비취지는 외관적 이미지로[10]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인상, 신념과 태도를 형성하는 요인이 된다[18]. 직업을 선택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치과위생사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 확립과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중요하다[11]. 아직까지도 치과위생사를 치과위생사라는 호칭보다는 치과간호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치과위생사 호칭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 한[19]은 15.3 %, 라[15]는 10.2 %로 아주 낮은 결과가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진료실내에서 치과보조인력에 해당하는 치과 근무 간호조무사나 코디네이터와의 역할에 따라 명확한 업무를 구분하고 질적으로 향상된 구강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20] 대중매체나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통해 우리 치과위생사의 정확한 호칭과 업무에 대해 알려야 한다.

본 연구는 일부지역의 인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역을 확대하여 계속되는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치과위생사는 자신의 개인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타인이 보는 치과위생사에 대해 전문직으로 인식하도록 단순한 진료 보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강보건전문가가 되기 위해 스스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내적인 변화와 치과위생사의 올바른 인식과 이미지 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에 대한 몰입도가 높고 성취감이 있는 선배치과위생사들의[21] 많은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치과위생사 스스로가 전문가임을 인식하고 고유 업무

를 발전시키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준다면 그에 따른 자아존중감도 향상되고,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치과위생사는 환자와 자기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1] J. S. Choi, "A study on the patient's expectation toward quality care of dental servic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Seoul, 2002.
- [2] M. J. Kim, H. K. Lee, Y. I. Kim, "A study on the dental hygienists' image perceived by health allied college students." *J Dent Hyg Sci*, Vol. 11, No. 6, pp.481-487, 2011.
- [3] K. H. Jo, "A study on the marketing strategies of hospital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2002.
- [4] M. H. Choi, "A study on how hospital image affects people choosing hospital."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Wonju, 2004.
- [5] M. S. Choi, "The factor of influence to stress in dental hygienist's work environment". Unpublished doctor's thesis, Soonchunhyang University, Chungnam, 2007.
- [6] S. J. Lee, G. S. Han,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ethical propensity of dental hygienists". *J Dent Hyg Sci*, Vol. 12, No. 5, pp.503-510, 2012.
- [7] Y. J. Lee, "The effect of group counseling on learned helplessn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1999.
- [8] S. Coopersmith,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1st ed. WH Freeman & Co., San Francisco, pp.4-38, 1967.
- [9] S. H. Cho, "A study on the image of dental hygienist."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Cheonan, 2000.
- [10] K. S. Shin,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image of dental hygienist."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Cheonan, 2009.

- [11] K. Y. Jeong, "A study on the image for dental hygienists and career consideration in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J Dent Hyg Sci Vol. 15, No. 6, pp.689-695, 2015.
- [12] E. M. Choi, Y. S. Lee, S. H. Lee, "A study on dental hygienist recognition and preference inhabitants in Seoul and Kyunggi-do." Kyung Bok Coll Vol. 8, No.-, pp.399-414, 2004.
- [13] B. W. Kang, "A study on the determinant factors the image of dental hygienists." J Korea Acad Dent Hyg Educ, Vol. 6, No. 1, pp.1-12, 2006.
- [14] H. S. Yoon, J. S. Kim, M. O. Lee, H. D. Kim, "Trend in preference for dental hygienist image among health care workers," J Den Hyg Sci Vol. 10, No. 4, pp. 211-218, 2010.
- [15] S. Y. La, "A study on the cognition for dental hygienist of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Cheonan, 2005
- [16] K. H. Lee, E. S. Jung, "Effects of education about dental hygiene devices on their use." J Dig Con Vol. 13, No. 2, pp. 245-256, 2015.
- [17] D. V. Bonotto, G. R. Montes, F. M. Ferreira, L. R. Assuncao, F. C. Fraiz, "Association of parental attitudes at mealtime and snack limits with the prevalence of untreated dental caries among preschool children." J Appetite Vol. 108, No. 1, pp. 450-455, 2017.
- [18] C. S. Ko, "The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desirable viewpoint of occupation for the adolesc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1994.
- [19] C. Y. Han, "Psychosocial distress and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is: and their related fact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University, Daejeon, 2008
- [20] S. J. Lee, H. Y. Cho, "Work reality of dental assistant." J Kor Con Soc Vol. 6, No. 4, pp. 153-159, 2015.
- [21] J. C. Lee, H. L. Roh, "Influence of burnout on job commitment in dental hygienists: in the Gyeongsang-do region." J Dig Con Vol. 14, No. 9, pp. 31-42, 2016.

한 옥 성(Han, OK Sung)



- 2012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치의학 석사)
- 2015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치의학 박사)
- 관심분야 : 치위생학, 치과재료학
- E-Mail : hanoksung@naver.com

정 경 이(Chung, Kyung Yi)



- 2009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치의학 석사)
- 2014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치의학 박사)
- 2014년 9월 ~ 현재 : 호남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예방치학, 임상치위생학
- E-Mail : 2014149@honam.ac.kr